
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배포일자 2021년 7월 28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 자치경찰운영과	담당자 • 자치경찰운영팀장 김상엽 ☎458-7281 • 담당자 김지선 ☎458-7283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, 여름경찰관서 현장 방문

- 7.26~8.21까지 을왕리·삽포·동막 해수욕장 등 개소 운영, 경찰 등 근무인력 50명 -
 - 시,자치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최선 다할 것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8일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(위원장 이병록)에서 피서철을 맞아 을왕리, 하나개, 십리포 여름경찰관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사항 등 현장을 둘러보고 연이은 폭염에도 안전한 피서지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.

특히, 올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을왕리 등 관내 해수욕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, 무엇보다 방역관리 및 시민안전이 급선무이다.

이에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거리두기 지침 및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을 토대로 인천시와 자치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 19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.

이번 여름경찰관서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각종 범죤예방, 질서 유지활동을 위해 경찰관 및 의무경찰 등 50여명을 배치해 피서지 치안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.

이병록 위원장은 “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수욕장을 찾는 휴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인천시와 자치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각종 범죤 및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” 고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